



◇종교청년 평화캠프 참가자들이 밥상을 받아 펼칠 때 외우는 전발개(展鉢偈)를 읽으며 합장배부하고 있다.

종교벽 허문 '화합의 만남'

KCRP 청년캠프...6대종교 50여명 참가 좌선·미사 등 체험하며 이해 폭 넓혀

10일 강화의 인천가톨릭대.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50여명의 젊은이들이 밥상을 무릎 앞에 펼쳐놓고 손을 모았다. 둘째날 저녁식사는 불교의 발우공양을 체험하는 시간이었다. 불교인이 아닌 젊은이들에게는 낯선 의식이지만, 범명스님의 설명을 놓치지 않려는 표정이 매우 진지하다. 범명스님의 선창에 맞춰 오관개 합창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고/ 내 덕행으로 받아가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욕심을 지향하는 약으로 알아/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발우공양을 체험한 개신교인 변예원씨(가톨릭대 종교학과3년)는 "밥을 씻은 물을 아껴들에게 베푼다는 '절수상념계(折水想念偈)'가 인상 깊었다"며 "만물과 음식을 함께 나눈다는 불교의 이웃사랑에 감동을 받았다"고 소감을 말했다.

10일 강화의 인천가톨릭대.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50여명의 젊은이들이 밥상을 무릎 앞에 펼쳐놓고 손을 모았다. 둘째날 저녁식사는 불교의 발우공양을 체험하는 시간이었다. 불교인이 아닌 젊은이들에게는 낯선 의식이지만, 범명스님의 설명을 놓치지 않려는 표정이 매우 진지하다. 범명스님의 선창에 맞춰 오관개 합창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고/ 내 덕행으로 받아가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욕심을 지향하는 약으로 알아/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발우공양을 체험한 개신교인 변예원씨(가톨릭대 종교학과3년)는 "밥을 씻은 물을 아껴들에게 베푼다는 '절수상념계(折水想念偈)'가 인상 깊었다"며 "만물과 음식을 함께 나눈다는 불교의 이웃사랑에 감동을 받았다"고 소감을 말했다.

참선·사경하며 '나' 찾아

태고종 선암사에서 첫 가족수련회

태고종 보현도량(회장 범성)이 주최하는 제1회 여름불교 가족수련회가 6일부터 9일까지 3박4일 동안 선암사에서 열렸다. 엄마와 아빠 자녀들 가족단위로 많이 참가한 이번 수련회는 부모와 자녀가 사찰이라는 한 공간 안에서 함께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시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교계의 주목을 받았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가족수련회에는 청소년52명과 성인 126명 등 총 178명이 동참해 '108참회사경대회' '교리퀴즈게임' '불교와 생활' '참선실수' 등의 알찬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번 수련회에 참가한 최동숙양(당진중 3)은 "스



◇태고종 보현도량은 제1회 가족수련회를 개최했다. 남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노래부르고 좋은 말씀도 들어 불교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보현도량 회장 범성스님은 "내년에는 어른과 어린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최직 광주지사장

열목어 사는 오대산 만들자

월정사 국립공원 청정계곡 가꾸기 나서 오물수거활동...가을엔 열목어 치어 방생

'오대산에 열목어가 살수 있는 깨끗한 계곡을 만들자' 매년 여름 휴가철이면 관광객과 피서인파로 물살을 얇고 있는 오대산계곡 일대가 청정지역으로 변했다. 이는 강원도 평창군 월정사가 교구본사로써 최초로 국립공원 오대산일대 환경보호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데 따른 것. 월정사(주지 현해)는 13일 스님 군장병 군정직인 및 경찰, 신원 사 회단체 등 3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오대산 일대에서 '열목어가 사는 아름다운 청정 오대산가꾸기' 캠페인을 벌였다. 불교성지인 오대산 월정사 주변의 수려한 환경을 보호하고 관내 유관기관간의 일체감 조성을 목적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1부 환경수호 결의, 2부 인근계곡 쓰레기줍기 행사로 전개됐

다. 특히 계곡 쓰레기 줍기에는 금강연 스킨스쿠버회원들이 계곡물속에 잠수하여 깊은 곳의 오물도 정화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함께 월정사는 환경캠페인이 쓰여있는 배지와 쓰레기봉투 1만장을 제작하여 관광객과 피서객들에게 나눠줬다. 또 캠페인 참가자들에게 사찰내에서 발우공양을 제공하여 발우공양이 환경보호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도 일깨워 주었다. 월정사는 단풍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올 가을에 두번째 오대산 청정가꾸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두 번째 행사에는 열목어 치어방생행사를 개최하여 천연기념물 73·74호인 열목어 치어를 월정사 인근계곡에 방류시킨다는 계획이며 이미 군부대에 열목어 치어 보급을 요청

해놓은 상태다. 이와함께 열목어 보호를 위한 산중음악회도 열어 사찰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오대산가꾸기 행사를 축제의 장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주지 현해스님은 "갈수록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 불교성지인 오대산을 깨끗이 하자는 취지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오대산 일대 환경운동을 전개, 국립공원내 가장 모범적인 환경사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월정사가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열목어는 오대산 상류에 주로 서식하고 있는 희귀종이다. 냉수성이어서 깊은 산 계곡에 살며 휴전선 이남인 오대산과 설악산에 주로 서식하고 있다. 열목어는 환경오염때문에 오대산 계곡에 소수가 남아 국립공원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연어과 어류로서 1급수에 서만 살기때문에 열목어가 사는 곳은 청정지역으로 알려졌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opia.com)

북경 공안당국 법회 막아 한인불자회 신행 어려움

중단협 中佛協에 협조공문

북경한인불자회가 중국 공안당국의 감시와 법회 불허 조치로 신행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경한인불자회는 83년 상사주 재원 가족들이 북경대학에 유학중인 월안스님을 모시고 가정법회를 봉행하면서 비롯됐다. 95년에는 학생회, 96년에는 거사법회를 창립했으며, 현재는 거사회 80명, 부인회 1백50명, 학생회 2백70명 등 모두

5백여명이 동참하고 있다. 매일 6~7회의 법회를 봉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 왔으나, 중국 공안당국의 감시와 법회 불허 조치를 내려 7월부터 법회를 봉행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 공안당국의 법회 불허 이유는 지도법사인 월안스님이 학생신분으로 유학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북경한인불자회 김유진회장은 최근 조계종총무원으로 편지를 보내 이같은 사정을 알리고 법회를

지도할 고국 스님의 파견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불교종단협의회 회장 고산스님은 7월 30일 중국불교협회 조박초 회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북경한인불자회의 신행활동에 대해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산스님은 조박초 회장에게 "북경한인불자회는 한국유학생과 상사주재원 등으로 구성된 순수한 신행단체임에도 최근 중국 공안당국에 의해 신행활동에 많은 제약 받고 있다"며 "기본법칙 법적 보호를 받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협회(중국불교협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opia.com)

우리절 불사 보문사 불교회관

◇보문종 보문사는 불교회관 동원정사를 건립하여 포교 교육 및 문화불사에 나선다.

새싹 키울 문화포교 도량

공간 마련에 분주하다. 불교회관 동원정사가 바로 그것. 보문사 일주문 오른쪽에 건립된 불교회관은 90%의 공정을 마치고 마무리 내부불사가 한창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이미 입주해 있는 상태다. 3백여평의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불교회관은 최신 현대식 건물로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1층에는 은영어린이집, 2층은 은영유치원, 3층에는 대강당이, 4층에는 신도회 청년회 학생회 어린이회 등 각 단체 사무실과 도서관이, 5층에는 만물전이 들어선다. 4층까지 불사는 대부분 마무리됐으며 5층 만물전 불사가 진행중이다. 불교건축에 남다른 신심과 장인 정신을 갖고 있는 대한불교예술원 불자들이 공사를 하고 있어 만물전은 불자들이 편안하게 기도정진할 수 있도록 아름답게 꾸며지고 있다. 사찰측은 "이제는 사찰이 신도들의 신생활에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대사회활동을 적극 포교활동이다. 그중 은영어린이집과 은영유치원 설립은 미래불교를 향한 단초다. 보문사는 포교 교육 및 문화불사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근 새로운

당신은 본래 청정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멋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아바타센터

마스터 / 워더 김희국 협장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TEL (02)396-2736 H.P. 016-228-2358

팜에 첫 한국사찰 관해정사 개원

부산 연등사(주지 반월)는 8일 한국사찰로서는 처음으로 팜에 관해정사를 개원했다. 해성스님(전 도선사 주지) 법어사 부주지 몽산스님, 국청사 주지 계정스님을 비롯한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 법회를 봉행한 관해정사는 팜의 수도 아가나시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으며 법당에 삼존불을 봉안했다. 개원법회에 앞서 6일 해성스님은 대한항공 참사 2주기를 맞아 대한항공 참사자 위령탑에서 천도재를 지냈다. 천미희 기자

법상종 연담종정 입적

대한불교 법상종 종정 연담 영명스님이 6일 오후 4시 입적, 8일 서울 덕암사에서 영결식을 거행했다. 세수 64세 법랍 34세. 연담스님은 1965년 미화사에서 찬우스님을 은사로 출가하고 71년 일통 서경보스님에게 건담했다. 법상종 6대 총무원장, 일불문도회 5·9대 회장을 역임했고 지난 94년 8월 법상종 제4대 종정에 취임했다. 이경숙 기자

건강을 선물합시다.

... 절기마다 기운의 흐름이 다르고, 그 흐름에 따라 양생법(養生法)이 다르다 ...

· 소서체조

· 대서체조

· 고치집신

그림과 함께 익히는!!
날마다 젊어지는 절기맞춤체조
크라판 280쪽, 정가 7,500원

평생의 반려자

하루의 투자로 평생의 삶을 미리 알 수 있는 『하락리수』! 우주의 생성소멸원리를 부호화하고 도식화하여 나의 능력과 운명을 알 수 있게 한 비결!! 태어남(생년월일에 음양과 오행이 부여됨)→ 384운 중의 하나→ 나의 평생운과 우주의 운행이 일치하는가? 거스르는가? 또 올해의 운, 이달의 운, 오늘의 운과의 일치여부→ 일치한다면 길은이니 적극적으로 행동, 일치하지 않으면 신중하고 조심하여 어려움을 넘긴다. *대우학당에서는 하락리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대우학당은 좋은 책만을 고집합니다. 02)2232-8383, 02)2234-1786

주역입문, 대산주역강해(상,하), 주역전대적역해(상,하), 대산주역정해, 주역인미, 미래를 여는 주역, 편해 매해역수, 하락리수(상,하), 음부경과 소서, 오행대의(원문, 번역), 천문류초, 태을천문도, 예언의 허와실, 절기맞춤체조.

仙道 "금선양생법으로 평생건강을"

道는 마음에서 시작하여 마음으로 이룬다.

仙道라함은 몸과 마음을 닦는 수련으로서 아무리 학문의깊이가 있다해도 실수련이 따르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에너지는 음기와 양기가 있는데 수련을 잘못하면 오히려 음기가 강해져 감각이 예민해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수 있는 능력이 생겨 그 부작용이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 악영향을 미치므로 선도를 통해 우리 몸의 양기를 증장시키는 공부를 하여야 한다.

훈훈하고 따뜻한 양기의 소주천만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며 그성성을 온화하게 해주며 더 나아가서 진중지를 이루어 금단을 맺는데 까지 나아갈수

본학회에서는 9월 3일 중국에서 중국의 살아있는 신선이라 일컬어지는 왕역평과 함께 수련회를 갖습니다. 이에 동참하실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수련문의 : 금선학회 02) 512-7057/7233
세계금선학회 회장 최병주

현대 불교

.. 지사안내 ..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양양지국 0396-672-5556
청주지사 016-347-2938
강릉지사 0391-43-5599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94-8859
진주지사 0591-747-0106
고성지국 0556-72-0078
제주지사 064-738-5000